

트리플세터 + 클린업트리오 주축 김주찬

호랑이 타선을 춤추게 하다

공격 첨병에서 해결사 역할까지, 신개념 3번타자 '자리매김'

나지완·김주형 홈런포 가동... KIA 공격야구로 순위싸움 주도

KIA 순위 싸움의 원동력은 '트리플 세터'와 '확장 클린업 트리오'.

올 시즌 KIA의 야구는 '공격 야구'다. 선동열 감독을 대표하는 것은 '자키는 야구'지만 허약한 불펜 탓에 마운드보다는 타격이 팀의 순위 싸움을 주도하고 있는 양상이다.

KIA는 지난 4월 선발진의 부상 속에서도 팀 타율 3할의 고공행진 속에 선두질주를 했다. 화력이 식은 5월에는 승률이 곤두박질쳤다. 힘겹던 6월 초반을 넘긴 뒤에는 무서운 기세로 홈런을 쏟아낸 타선 덕에 잠잠하던 순위 싸움에 재시동이 걸렸다.

타격 페이스가 있는 만큼 '방망이는 믿을

게 못 된다'는 말도 있지만 정리되지 않는 마운드를 생각하면 KIA에게는 타격이 비밀 언덕이다.

불펜 대란을 잊게 한 타격의 중심에는 3번 타자 김주찬을 중심으로 한 '트리플 세터'와 하위타순에 투입된 거포 김주형으로 완성된 '확장 클린업 트리오'가 있다.

올 시즌 2번 타자로 출발했던 김주찬은 최근 이범호의 부진 속에 3번으로 자리를 옮겼다. 톱타자 이용규, 부상 공백에서 2번을 대신했던 김선빈 그리고 김주찬까지 팀 최고의 기동력을 갖춘 3명이 나란히 배치되면서 테이블 세터를 넘어 '트리플 세터'라는 말이

나왔다.

김주찬의 남다른 발과 적절한 타이밍에 터지는 방망이는 기동력과 중심타자 역할이 더해진 기대 이상의 효과를 만들었다.

김주찬은 두 달 가량의 공백에도 18일 현재 12개의 도루를 기록하며 10위에 올라 있다. 경기당 도루 수도 김주찬(0.66)이 도루 1위인 NC 김중호(0.41)를 앞서고 있다. 13번의 시도에서 한 차례 실패를 기록, 도루 성공률도 92.3%를 보이고 있다.

빠른 발을 앞세워 상대 배터리를 괴롭히면서 4·5번 타자들에게는 테이블 세터 역할을 해주고 있다.

4번 나지완은 "(김)주찬이 형이 나가있으면 아무래도 타점을 올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 집중해서 승부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주찬은 클린업트리오 역할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다. 찬스에서 발휘되는 승부사 기질은 KIA 타선을 춤추게 했다. 지난 15일 SK전에서는 싸움이 2루타와 3루타로 5타점을 쏟아내며 한 경기 개인 최다 타점을 기록했다.

하위타순에서 버티고 있는 김주형은 거침없는 파워로 '확장 클린업 트리오'를 구성했다.

'테이블 세터'와 '클린업 트리오'역할을 겸하고 있는 김주찬, 한방이 살아난 나지완·최희섭이 중심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두 경기 연속 장외포 주인공인 김주형이 하위타순에 배치되면서 지뢰밭 타선이 완성됐다.

18일까지 18경기에 출전한 김주형은 규정

타석 진입에는 아직 멀었지만 일단 5개의 홈런포와 함께 0.649의 장타율을 기록하고 있다. 장타율로만 따지면 팀 내 1위다. 나지완이 55경기에서 0.542의 장타율(홈런 9개)을 기록하며 최정(0.681)에 이어 전체 2위.

상대 입장에서는 중심타선을 넘으면 하위타순에서 한방 있는 타자가 기다리고 있고, 이를 지나가면 막강 '트리플 세터'를 만나야 하는 까다로운 승부다.

'트리플 세터'와 '확장 클린업 트리오'는 이범호의 부진과 김주형의 불확실함 탓에 만들어진 임시방편 타순이지만 의외의 결실이 나오면서 KIA의 순위 싸움에도 새 바람이 불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홍명보 한국축구 희망될까

월드컵 대표팀 이끌 사령탑 후보 1순위

협회, 귀네슈 전 터키 감독 등과 저울질

홍명보 전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 한국 축구 대표팀을 이끌 새 사령탑 후보 가운데 1순위로 낙점됐다.

대한축구협회는 19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술위원회를 열어 새 사령탑 후보를 홍 감독을 포함해 4명으로 압축했다. 협회는 홍 감독을 제외한 다른 감독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허정무 협회 부회장은 "기술위가 홍명보 감독을 가장 유력한 후보로 추천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팀 감독직과 관련해 홍 감독과 교감이 있었다"고 말해 홍 감독이 협회의 요청에 응했음을 암시했다. 그러나 허 부회장은 협회 집행부 논의, 계약 등의 절차가 남아 홍 감독이 차기 감독으로 내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감독은 2009년 19세 이하 월드컵,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2012년 런던올림픽 대표팀의 감독을 맡아 현재 성인 대표팀의 주축을 이루는 '황금세대'를 조련했다. 특히 런던올림픽에서는 동메달을 획득, 한국에 사상 첫 축구 올림픽 메달을 선사하며 세계

정상급 국가와 겨루는 단거리전에서도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협회는 회장, 부회장, 기술위원장이 참석하는 회장단 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차기 감독을 발표하기로 했다. 새 감독은 이날 임기가 끝난 최정호 전 대표팀 감독의 후임으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본선에서 한국을 이끈다.

허 부회장은 "차기 감독이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시간(여유)을 가질 수 있게 협회 차원에서 배려할 것"이라고 밝혀 2018년 월드컵까지 염두에 둔 장기계약이 이뤄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홍 감독은 거스 히딩크 전 한국 감독이 이끄는 러시아 프로축구 안지에서 연수를 마치고 현재 가족과 함께 미국에 머물고 있다. 홍 감독은 22일 귀국할 예정이다.

허 부회장은 홍 감독을 제외한 후보들은 이미 후보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감독들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를 귀네슈 전 터키 감독, 마르셀로 비엘사 전 아르헨티나 감독 등이 후보명단에 올랐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허 부회장은 외국인 지도자의 자격 조건으로 월드컵 16강 진출을 달성한 경험을 꼽았다. 귀네슈 감독은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터키를 4강으로 이끌었다. 비엘사 감독은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칠레를 16강에 올렸다. 그는 "외국인 후보 중에는 현재 한국 감독직을 원하는 지도자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감독뿐만 아니라 외국인 후보들과도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접촉해왔다고 덧붙였다. 국내 후보들의 경우는 월드컵에 출전한 경험, 선수들을 일사불란하게 통솔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역량을 집중적으로 살폈다고 밝혔다.

허 부회장은 "홍 감독은 월드컵에 선수로 네 차례나 출전해 경험이 풍부하다"며 "월드컵 코치, 올림픽 감독으로서 지도력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홍 감독 외의 다른 국내 후보로는 김호근 울산 현대 감독이 거론되고 있다.

김 감독은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지내고 지난해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서 울산을 챔피언으로 이끌었다.

협회는 사령탑 후보가 됐다 탈락하는 경우 지도자로서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며 유력한 후보인 홍 감독을 제외한 지도자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습스

광주 FC 박현·임하람, K리그 챌린지 14R 베스트 11 선정

광주 FC의 2연승을 이끈 박현이 첫 베스트 11의 영예를 안았다.

광주의 박현이 19일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발표한 K리그 챌린지 14라운드 베스트에 선정됐다. 왼쪽 수비로 거듭난 임하람도 시즌 다섯 번째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선정위원회로부터 "과감한 침투 끝에 전반 종료 직전 해딩 결승골을 터트린 주인공"이라는 평가를 받은 박현은 염기훈·배기중(이상 경찰), 고재성(상주)과 미드필더 부분

에서 어깨를 나란히 했다.

박현은 지난 고양과의 경기 전반 종료 직전 과감한 침투 끝에 루시오의 크로스를 받아 해딩 결승골을 터트리며 팀의 첫 2연승에 앞장섰다. 지난 6일에 이어 10여 일 만에 터진 시즌 2호골이자 시즌 첫 주간 베스트11이다.

2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의 원동력이 된 임하람은 "수비진을 잘 지휘했고 상대의 거센 공격을 안정적으로 리딩하며 팀 승리 지원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임하람은 장신(186cm)을 바탕으로 한 제공력과 노련한 수비 리딩이 장점으로 올 시즌 5번째 베스트 11 선정이다. 임하람은 광주 수비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K리그 울스 타진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한편 2라운드 무패행진으로 3위 부진을 1점 차까지 추격하는 데 성공한 광주는 오는 30일 오후 7시 안방에서 상주 상무를 상대로 시즌 3라운드 첫 번째 경기를 치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전남드래곤즈 새 마스코트에 이름 붙여주세요

전남 드래곤즈가 새로운 마스코트의 이름을 찾는다.

K리그 클래식 18일 구단의 새로운 공식 마스코트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공식 마스코트는 175cm, 70kg로 부드러운 면으로 친근함을 주

는 이미지로 제작하였으며, 전남의 팀 컬러인 노란색을 사용해 팬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배변은 전남의 창단년도인 94번으로 확정했다.

전남은 이번 공식 마스코트 공개를 기념해 마스코트의 이름을 공모한다. 이름과 간단한 설명을 적어 오는 28일

까지 메일 (argoss@dragons.co.kr)로 접수하면 된다. 1인 1개만 응모할 수 있다.

당선자 1명에게는 원하는 선수의 레프리카 유니폼과 기념사진 촬영 기회를 제공하며, 가작 5명에게는 선수 친필 사인 볼과 화화 아쿠아플라넷여수 관람권을 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